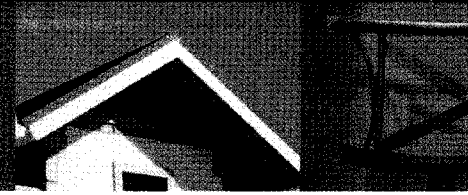


# 21세기 화장실 문화와 환경보전

환경운동센터 염태영 사무처장



밀레니엄을 50여일 앞 둔 지난 11월 9일, 일본 키타큐슈(北九州) 시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 화장실 심포지움 '99」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매년 일본의 주요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해온 화장실 심포지움이 15회째를 맞아,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연3일간 국제 심포지움으로 확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일본화장실협회와 공동개최한 키타큐슈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아주 가까운 후쿠오카현 제2의 임해도시로서, 일찍부터 많은 산업시설과 종합전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활기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듯 국제 무역거래의 활력이 높고 친환경적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키타큐슈시가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 15개국 300여명이 참여한 국제 화장실 심포지움을 유치·개최한 것은 이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썩 잘 어울린 대목이었다는 느낌이 들게하였다.

올해의 심포지움 주제는 화장실을 통해 21세기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21세기의 화장실과 인간환경'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의 화장실 실태 발표 세션에서 '한국의 화장실 사정'을 발표한 무림교역의 이상정 회장과 서울시 공무원 1인, 그리고 필자 등 모두 3명이 참가하였다. 일본화장실협회는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에 뜻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1984년 「Toiletopia의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어, 그 이듬해 5월 종합적인 화장실 환경개선과 새로운 화장실 문화창출을 기치로 정식 창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이 협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연구자, 일반시민 등이 폭 넓게 참여하여 화장실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화장실 문화 계몽,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기업과 행정 및 시민간의 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을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비영리 임의 단체이다.

이번 '99 심포지움에서는 주행사인 심포지움 외에도 국제화장실 기기전(機器展)과 국제 화장실 포스터섹션 및 판넬전시회 그리고 화장실 논문 콘쿨 등의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려 참가자들과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한층 흥미있었던 것은 일본화장실협회가 매년



▲ 일본 키타큐슈에서 열린 아시아 · 태평양 화장실 심포지움회칭에서의 필자



실시하는 일본내 '좋은 화장실 10곳 선정' 행사를 심포지움 참가자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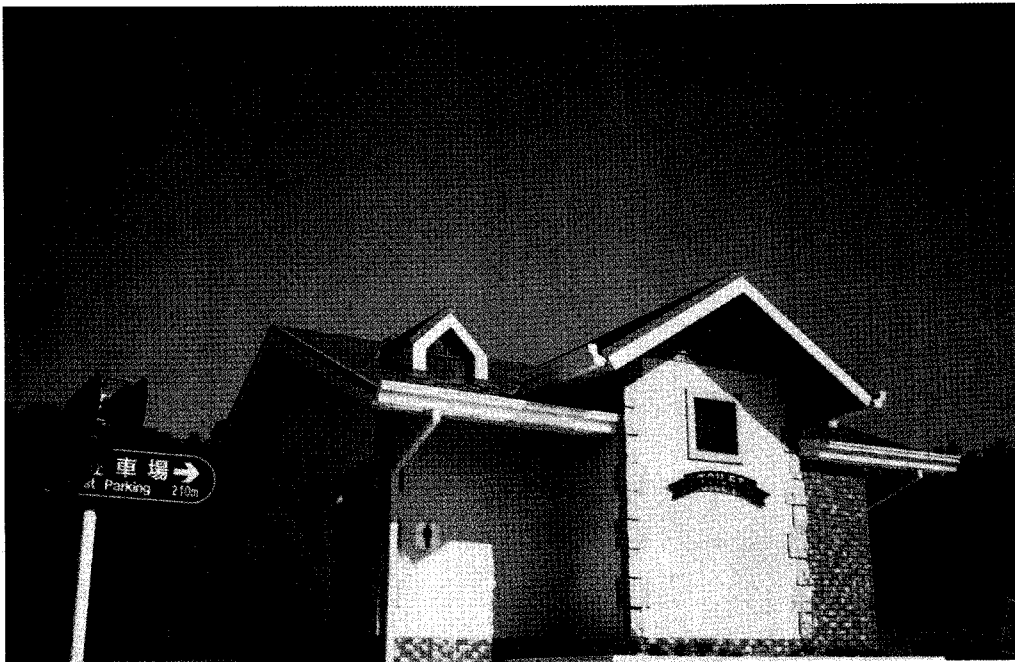
심포지움 참가자들이 일본 각지에서 응모된 화장실 50여점이 행사장 로비에 판넬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투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경·사회부문상, 디자인상, 유지관리상 등의 각 부문상과 대상이 선정되고, 바로 그날 저녁 리셉션 시간에 시상식을 갖음으로서 참가자들의 흥미유발은 물론, 언론의 홍보에도 매우 좋은 이벤트가 되기에 충분했다.

일본화장실협회의 사업중 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은 늘 구체적인 현장과 실천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다. 즉, 협회내에 「자연관광지 화장실 연구회」, 「하천변화장실 연구회」, 「가설·이동화장실 연구회」, 「화장실 유지관리 연구회」등의 산하 모임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에도 '학교 화장실에 관한 활동'과 '산악 화장실에 관한 활동' 그리고 '하천 공원 화장실

사용전시회' 등의 사업을 연중 일본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 개최시에도 산하모임이 각기 자기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각 부문별 활동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자연관광지 화장실 연구회」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산악 등산객 추세에 발맞추어 자연관광지의 환경문제에도 눈을 돌리도록 하는 생태관광 (Eco-Tourism)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연속에서 인간의 배설물이 오염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금번에 출품된 국제화장실기기전(機器展)의 주요품목은 '위생설비기기'와 '자기완결형 화장실 설비', 그리고 '간이화장실과 자연 에너지 이용설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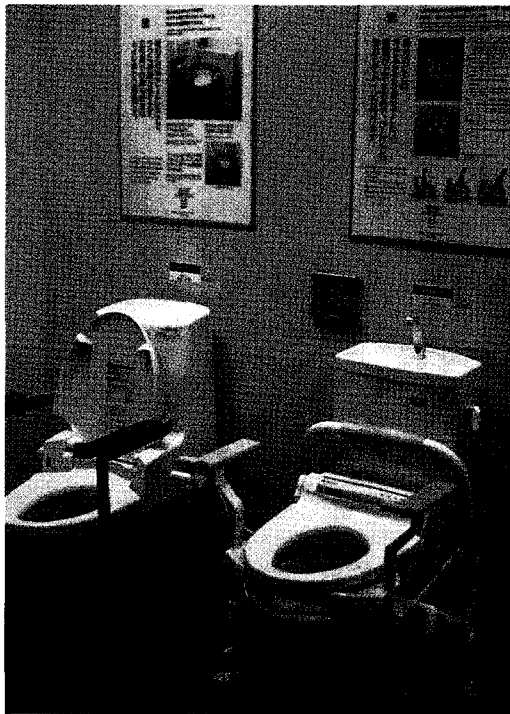
위생설비기기로는 일본인 특유의 청결하고 세밀하여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품이 많이 선보였다. 그 중 신제품으로 화장실과 욕조제조 전문회사라 할 수 있는 일본 TOTO 사의



▲ 아담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본의 공중화장실

뇨당(尿糖) 검사기가 특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제품은 당뇨병의 예방과 진행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의 수세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면 즉시 자신의 혈당치가 수치로 나타나도록 고안된 설비이다. 현재 일본의 당뇨병환자는 50세이상 성인 남성 4명중 1명, 성인여성 5명중 1명꼴인 약 1370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잠재적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제품은 아마, 곧 인기품목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듯 했다. 사실 측정기를 손으로 직접 소변에 대지 않고 스위치 한번만으로 간단히 자신의 혈당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좌변기에 소변을 보는 것만으로 방금전에 마친 식사나 운동내용까지 세밀히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일반사람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성 화장실용 음향장치에 대한 제품은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여성의 배뇨 소음을 다른 소리로 감춰주는 음향장치를 동경의 한 여자대학에 10년전부터 설치해 상당한 절수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그 절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였더니 무려 연간 1,876만엔(약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각종 화장실 관련 data가 매우 풍부하게 조사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동경도 수도국 조사에 따르면 동경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48ℓ의 물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양은 전체 도시생활 물사용량의 68%에 해당하며 그 중 화장실 물사용량은 약27%인 58ℓ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 물 1m<sup>3</sup>를 절약한다면 이로인해 CO<sub>2</sub> 약 0.16kg이 덜 배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해 놓고 있다.

얼마전 필자가 속해있는 연구소에서는 수원지역 거주 주민들의 일반가정 물 소비량을 계량기로 실측 조사한 적이 있다. 가정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212ℓ이었고, 수세식 변기 물 사용량은 그중 30%수준인 65ℓ 정도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에 비해 화장실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조금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화장실 심포지움과 기기전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 부문은 「자기완결형 화장실」이었다. 여기에서 자기완결형이란 함은 인간의 배설물이 하천이나 하수로도 배출되어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함이 없이 하나의 설비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오수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이때 이용되는 처리방식은 업체마다 각기 다른데, 가장 많이 소개된 자기완결형 화장실 처리 시스템으로는 야외의 공원같은 곳에 설치 하여 효과를 보고있는 토양처리시스템이었다.

이는 외부 전기나 수도의 공급 없이도 토양의 자연정화력만으로 오수를 깨끗이 토양속에서 처리토록 한 것인데, 수세식에 쓰이는 물은 세정수 순환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정화조의 무방류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화장실을 에코화장실 또는 에코

리싸이클화장실, 자연정화식 오수처리시스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외에도 자기완결형 화장실 처리방식으로 전기소각 또는 건조방식 화장실과 고액분리 변기방식, 분뇨퇴비화방식 화장실 등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처리로만 만족해하고 있던 실정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의 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에 적잖은 시사를 주었다.

11월 10일은 일본에서 「화장실의 날」이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채택한 선언문(첨부선언문 참고)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자와 장애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장실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자는 것과, 아시아·태평양 연안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화장실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추진 결의가 함께 있었다. 내년에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주최로 한·일 화장실 문화 심포지엄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선진 문화시민의 책도가 그 나라의 공중화장실 수준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선진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반문하여 본다. 다시한번 화장실 문화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이를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보는 시대의 격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심포지움 '99

-北九州 선언문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심포지움 '99」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일본의 산업, 교통의 요지이며, 국제환경선진도시를 지향하는 北九州市(키타큐우슈우시)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5개국의 지역, 국제기관등이 참가하여 "21세기의 화장실과 인간 환경"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1세기를 앞두고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안고 있는 화장실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환경, 위생, 도시계획, 농·산촌 정비, 관광진흥, 교육·문화, 산업·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화장실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인식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1.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가자는 상호협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2. 물과 삼림, 에너지 지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화장실 기술을 개발하며 정보를 교환한다.
3. 미래세대를 담당할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자, 장애자가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화장실 정비를 도모한다.

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1999. 11. 10  
「화장실의 날」에

